

# 北, 미사일 은닉·전개 반복... “피로감 극대화 전략” 북 도발저지 국제사회 압박 강화

### 발사 차량 수시로 장소 옮겨 한미첩보망 교란

### 한때 발사대 세웠다 내리는 등 기만전술 펼쳐

북한이 원산지역으로 옮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격납고에 숨겼다가 끌어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고도의 기만전술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남도 일대에서 관측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도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한미 첩보망을 교란하고 있다.

북측의 정부 소식통은 11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곧 발사할 것이

러는 정확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사일을 격납고로 옮겼다가 전개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함경남도 지역에서 식별된 TEL 4~5대도 수시로 장소를 바꾸고 있다”면서 “미사일 동향을 관측하는 한국과 미국의 피로감을 극대화하고 정보를 교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전 격납고에 있던 무

수단 TEL 2대 중 1대가 나와 탑재된 발사대를 한때 세웠다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원산에 배치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상공을 향하고 있는 것을 정찰 위성으로 확인했지만 위장 공작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발사대를 세웠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원산 쪽의 기상이 좋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고 말했다.

무수단 미사일에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무수단 미사일에 연료

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연료 차량이 식별되어야 하는데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연료 주입 작업이 끝났는지는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수단 미사일은 주연료로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료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어 한번 주입하면 1주일 가량은 발사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미사일 본체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연료를 주입할 상태에서는 미사일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연료를 주입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

오고 있다. 연료 주입 시간은 30여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군사위성과 고공정찰 정찰기(U-2), 이지스 구축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미사일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10일 이후 15일 전후까지 발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그때 쏠지, 몇 발을 쏠지, 언제 쏠지 등은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中 “한반도 평화 저해 반대” 러 “北 문제 美와 입장 같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판도 강해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가 주목된다. 중국은 9일 홍웨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어느 나라일지라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언급,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킨 북한을 비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해외판 1면 칼럼에서 “조선(북한)이 정세 오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원인이 어쨌든 북한이 도를 넘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직접 나서 “북한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은 차이가 없다”며 미·러의 일치된 목소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의 외교공관

철수권고와 관련, 전장이 임박했다는 북한의 위협이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외교문서를 북한에 전달키로 했다.

영국런던에서 진행 중인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어 북한을 규탄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G8 회담 직후 한·중·일 3국을 방문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순방 기간 한미 간 대북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 촉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주한 대사관 수석 곳을 상대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 저지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주한 외국인의 철수 경고에도 철수나 대피를 준비 중인 국가는 전혀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단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EU와 아세안(ASEAN) 의장국, 필리핀 등 각국 외교장관들과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주력했다. /연합뉴스

### 美,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 “조치 없으면 무역제재”

### 정부, 원양산업법 개정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벌이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입수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과 에콰도르 등 10개국을 ‘IUU 자행국가’ 목록에 등재했다.

IUU 자행국가로 등재되면 불법 어업이나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한 그물에 걸린 다른 종을 어획하는 행위)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의 어선은 미국 항만 진입이 금지되고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 조치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따라서 이 기간에 불법 어업을 규제할 법·제도를 강화하면 제재 조치를 면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양어업 업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저지른 불법 어업 행위와 각종 국제수산기구 법규 위반 행위, 선상 외국인 인권 침해 행위는 모두 34건에 달한다.

모두 359척의 원양 어선을 거느린 우리나라 업체들은 남극해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우)를 남획하고 아프리카 수역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어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朴대통령, 외국인 투자자 불안해소 나서

### 청와대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안보위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주한 외국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새 정부의 경제방향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북한의 도발과 위

협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왔다”며 “과거에도 북한은 수차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왔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적 역지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또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지속적인 대외개방이라고 설명한 뒤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누구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상품

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창조경제 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개방 정책 기조와 관련,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역시 시장과 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한철 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통과

### 81일간 공백사태 해소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여야 의원 266명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월21일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과 이동훈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거치며 81일째를 맞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박 후보자는 12일 오전 새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결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 잡

힌 사고와 풍부한 경험,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적격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 관여우 전력이 있다”며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 반대파의 상당수는 야당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은 63.2%는 지난 2000년 윤영철 전 소장에 대한 찬성률 91.2%, 2007년 이강국 전 소장에 대한 85.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 현대공인중개사

####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재지: 광산구 산정동
- 면적: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지목: 잡종지
- 입지조건: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차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권장 용도: 화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워터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95㎡(90평)

캐나다산 원목가공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6억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 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대로변 코너 소형 상가건물

주월동 상가 대지141㎡ 건물135㎡ 중 앞지구입구 35m대로변 코너 주차편리 매2억6천만원(카센터 전시장 미용실 등 다용도적합)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 원룸 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지 324㎡ 건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용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패(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111-0012-2532 (광주영천 신문정원, 대인동, 소정원, 건대)